

2020

ISSUE BRIEFING

연구진

이강진_연구본부장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의의 및 향후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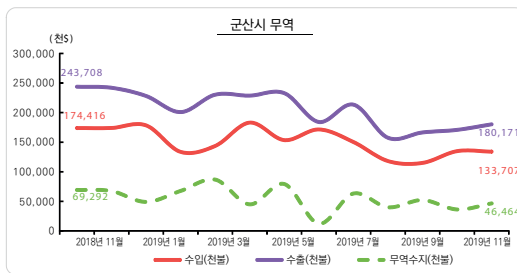
CONTENTS

1.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2
2. 지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2년의 지원 실적 4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관련 기업의 정책수요 7
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승인, 전라북도와 군산시 사업추진 방향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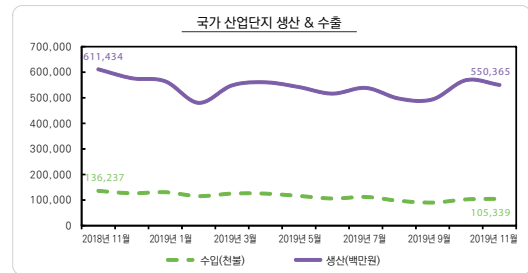
1.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개요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 7월), 한국GM군산공장폐쇄결정('18.2월) 등 군산의 주력산업 붕괴에 따른 대응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최초 지정('18.4월)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역의 두 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사유를 들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전북 군산을 최초로 지정
 - 정부와 지자체는 2년 동안 군산지역에 위기지역의 피해지원, 지역산업육성, 지역상권 회복에 대한 지원 등 사업 추진
- 2년의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북 군산의 산업기반 및 경제상황은 개선되지 않아 추가 지원 필요성 대두
 - 2년의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북 군산의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자동차, 조선산업의 생산 및 수출 크게 위축
 - '19년 11월기준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5.5% 감소한 5억3,197만달러,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9.6% 감소한 3억8,397만달러로 '18년 이후에도 수출 수입 모두 하락세
 - '19년 11월기준 국가산업단지 생산 및 수출을 보면 생산은 전년동월비 10.0% 감소, 수출은 전년동월비 22.7% 감소하는 등 경기침체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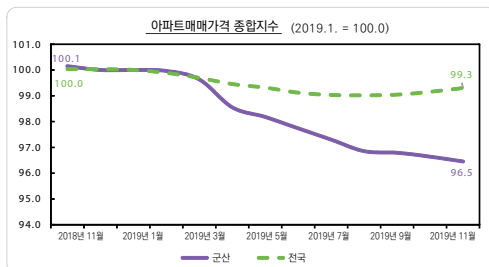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군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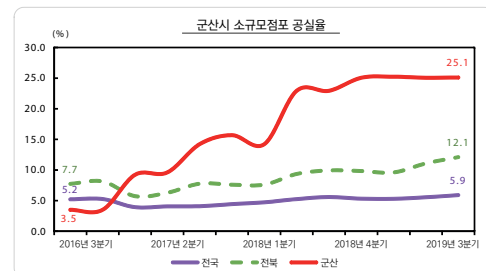


자료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군산시

- '19년 3분기 기준 소규모점포 공실률은 25.1%로 전국평균 5.9%보다 크게 높으며 '19년 11월 아파트 매매가격 종합 지수는 96.5로 전년 동기대비 4.6p 하락(전국 0.7p 하락), '19년 11월 순 인구이동은 170명의 순유출 발생하는 등 군산지역 경제가 어려움이 지속됨
- '19년 11월 실업급여 인정자수는 382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0명 감소, 지급건수는 2,03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187건 감소하는 등 일부 고용부문에 안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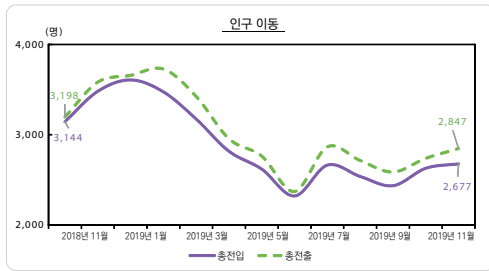


※ 지수의 기준시점(2019.1. = 100.0)
자료출처 : 국민은행, 군산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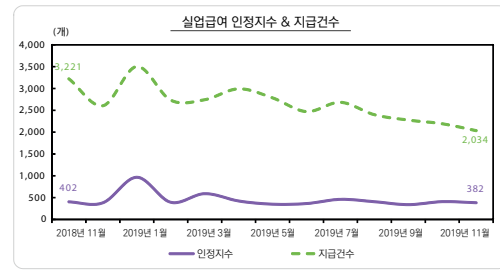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군산시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의의 및 향후 정책 방향



자료출처 : 군산시, 민원봉사과, 통계청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군산시

• '20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연장 결정

- 전라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을 신청하였고('20년 2월) 기업인, 소상공인, 각계인사 등이 지정연장 승인을 촉구함
- 민관합동 현장조사단 현장실사에서는 협력업체, 소상공인, 지자체 등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 경제 및 산업 실태를 파악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위기심의회위원회'는 군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의견을 제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20년 3월 10일)를 통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연장 결정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의의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지원에 전북 군산은 2년+2년, 타 지역은 1년+2년의 지원 방식을 채택

- 산업통상자원부는 '19년 4월 23일 울산 동구,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5개 지역에 대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으며 이 지역들은 '18년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1년 지정 된 이후 '19년에 2년 지정 연장을 결정 함
- 전북 군산은 '18년 4월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년 3월 지정연장이 결정되어 '21년 4월까지 지원 될 예정

• 타 지역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은 조선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변화로 수급시장에서 해결이 가능하나 군산은 회생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산업 육성 위한 강력 지원책 필요

- 경남과 전남의 조선산업은 '18년이 저점이었고 '19년에 들어와 회복세(경남 '18년 66.3 → '19년 87.2, 전남 '18년 68.8 → '19년 83.5)를 보이고 있으나 전북은 여전히 하락세가 진행 중('18년 20.2 → '19년 13.9)이며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이 재가동하기 전까지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
- 전북 군산의 경우 조선 연관산업 육성, 대체산업 발굴 및 육성과 더불어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정상화 추진 등 투 트랙으로 접근 필요

2. 지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2년의 지원 실적

◎ 지원분야 및 지원실적

• 근로자·실직자 지원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군산고용위기지원센터 운영), 고용위기지역 희망근로 지원사업,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업종전환 및 재취업 지원사업, 지역조선산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등 추진
- 위 4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군산고용위기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1,227명의 취업을 지원하였고 희망근로 지원사업으로 위기지역 취약계층 3,989명에 공공일 자리를 지원
- 자동차 및 조선산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에는 각각 111명, 32명을 재취업 시키는 실적을 거둠

• 소상공인·중소기업·협력업체 자금지원

- 기업체 자금지원은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50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산·기보 특별보증 프로그램 367억등 4,400억원(전국지원)을 지원 하였고
-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기은, 중진공, 새마을금고 대출 및 신보, 기보 보증대상)의 기존대출 1년간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 지원(만기연장 9,239억7천3백만원 지원)

•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 위기지역내 중소·중견기업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세 납기연장·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신규투자를 촉진하고, R&D,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 등이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추진
-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19개 주관 부품기업 및 14개 참여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여 수요기반형 R&D를 추진하고, 조선산업 부품기자재 업체 위기극복 R&D 지원사업에 2개 주관 및 6개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부품기업 자생력 강화를 지원 중에 있음
- 기업비즈니스센터 신설로 68개사의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특허/인증,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 원스톱 지원
- 협력업체 등의 고부가가치 사업전환·다각화를 위한 산업다각화 지원사업으로 27개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 디자인, 마케팅, 컨설팅 등 39건의 과제를 지원하여 제품 사업화 매출 증대 및 신규고용 창출
- 전통시장 內 복합청년몰 조성 지원을 통해 20개의 점포가 조성되는 등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통시장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

•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 기존 현대중공업, 한국GM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기존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생태계 보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친환경·신산업 분야 대체산업 육성 지원, 관광레저휴양 등 보완산업 활성화, 신규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 추진
- 친환경·신산업분야 대체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장기적, 지속적인 산업체질 고도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은 '19년 1월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20년부터 2개분야 23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대기업 의존구조에서 벗어나 중소형 선박기자재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고도화 센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한 지역산업 체질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의의 및 향후 정책 방향

- 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수상태양광 종합평가센터,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등이 추진되고 있음
- 관광·레저·휴양 등 보완산업 활성화 지원은 역사·문화자산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이 구축 완료되었으며,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와 관광산업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립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1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관광 및 휴양 수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신규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확보를 위한 부지조성이 진행 중이며, 임대료를 5%에서 1%로 대폭 하향함으로써, 투자협약 26개 기업 및 입주계약 19개 기업 달성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상품권 할인발행 지원, 지역인프라 사업 조기추진 및 정부지원 사업 확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을 추진
-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상권 소비 촉진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10,098여 개소의 가맹점을 확보하였으며, '18.11월 기준 가맹점 8,400여개소 중 66.5%에서 매출상승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 진행 중
- 지역인프라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추진되는 새만금 동서 및 남북도로 사업은 새만금 지역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적기 예산지원을 통해 계획년도 준공(동서도로 '20년, 남북도로 '23년)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중이며, 군산 관리도 접안시설, 말도항 선착장 개선을 통해 도서지역 개발 및 관광객 유치 확대, 군산해역 해산 서식장 조성을 통해 어족자원 확보를 통한 어민들의 소득창출 기여가 기대됨
- 군산시 청년들의 소통과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 역할을 수행할 청년센터 설치를 통해 청년들의 취·창업, 복지·문화 등 다양한 활동 지원

◎ 지원실적 진단

- 근로자 실직자 지원사업은 타 업종 경기침체로 일자리 신규창출이 저조하여 재취업 실적이 낮으나 기업의 신규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 퇴직자 재취업 정책 필요
 -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의하면 '17년 기준 한국GM 군산공장 재직자의 27.6%가 '20년 1월에도 실업자 상태로 군산에 거주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 생산기업((주)명신, 에디슨 모터스, 대창모터스, 에스엠피 코리아)들의 신규투자로 1,900여명 고용계획이 있으므로 이들 인력수요를 지원할 재취업 정책 지속추진 필요
- 기업체 자금지원은 경기가 더 어려워 채무변제 보다 연장이 늘고 자금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
 - '18년보다 '19년도에 자금지원과 만기연장이 각각 16%, 137% 증가한 것을 볼 때 '18년 보다 '19년 경기가 더 어려워져 채무변제 보다는 연장이 늘어났고 자금수요도 더 증가해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전환되지 못함
-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대부분이 개발착수, 설계 중, 용역완료 등 사업추진 초기 단계로 성과측정에는 시기상조
 - 대체·보완산업 육성 방향은 기존 자동차·조선 기반 고도화 전략과 연관산업 육성 그리고 신산업 발굴 등으로 군산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한 위기 대응 추진 중으로 대부분 사업 초기단계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중 고향사랑상품권 할인발행은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판매 사업은 '19년 말 기준 4,910억원이 판매되었고 10,098개소 가맹점이 참여하였으며 '18.11월 기준 8,400여개소의 가맹점 중 66.5%가 매출상승 효과를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중 지역인프라사업 조기추진 사업은 도로구축, 항만시설 개선, 수산자원 조성 등 밀착형 인프라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관련 2개사업(새만금 동서도로건설,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사업)이 투입되어 새만금 사업의 조기추진 및 항만·접안 시설 개선으로 도서지역 개발의 마중물 역할

◎ 지원정책의 효과

- 지원정책 일부 가시적 효과 창출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중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역 건설산업을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고향사랑상품권 할인발행은 가장 직접적으로 사업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으로 많은 가맹점의 참여와 참여자의 매출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 전반적인 효과성은 아직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

- 단기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일부 완료 되었으나 대부분 진행 중이며 대체보완산업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대부분은 진행 중으로 위기업종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다각화 추진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시기상조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관련 기업의 정책수요

◎ 산업위기 관련기업대상 설문조사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승인과 관련하여 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시
 - 군산시가 자동차·조선 등 위기업종을 중심으로 '20년 2월1일 ~ 2월 14일 53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시
 - * 전북 TP에서 '19년 3월 전화와 팩스를 통해 4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기업들은 자금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20년 2월 조사에서 지원필요 분야로 자금이 5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R&D(16.3%), 기술사업화(13.0%), 판로/마케팅(12.0%) 순
 - '20년 2월 조사는 '19년 3월 조사와 비교하면 자금 비중이 높아진 반면 R&D와 판로/마케팅이 소폭 하락, 기업경영 위한 자금지원이 더 절실해진 것을 보여줌

〈 산업·고용위기 극복 위한 지원필요 분야 〉

구분	구분	자금	기술사업화	R&D	판로/마케팅	인력/교육	기타
'19년 3월 조사*	응답수	28	8	12	9	2	1
	비중	46.7%	13.3%	20.0%	15.0%	3.3%	1.7%
'20년 2월 조사**	응답수(복수)	49	12	15	11	5	0
	비중	53.2%	13.0%	16.3%	12.0%	5.5%	0.0%

출처: * 고용·산업 위기지역 설문조사, '19년 3월 27일(전북TP)
 ** 고용·산업 위기지역 설문조사, '20년 2월 1~14일(군산시)

- 기업들은 현재의 산업위기가 단기간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음
 - 현재 산업위기가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기업이 무려 67.3%에 달해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줌

〈 산업·고용위기 단기회복 예상 여부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응답수(개, %)	2	4	11	23	12
비중	3.8%	7.7%	21.2%	44.3%	23.0%

* 출처: 고용·산업 위기지역 설문조사, '20년2월1~14(군산시)

- 대부분의 위기업종 기업들은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화를 추진 중
 -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업종 다각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비중이 80.0%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업계가 80.0%, 기계조선 업계가 86.8%로 대부분 기업들이 다각화 노력 중
 - 기업에서는 기존 위기업종 뿐 아니라 다각화 가능업종인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지원 요구

〈 산업·고용위기 극복위한 다각화 추진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합계
자동차(개, %)	4(16.0%)	16(64.0%)	4(16.0%)	1(4.0%)	0(0.0%)	25(100.0)
기계조선(개, %)	12(52.0%)	8(34.8%)	2(8.8%)	1(4.4%)	0(0.0%)	23(100.0)
기타(개, %)	0(0.0%)	0(0.0%)	1(50.0%)	1(50.0%)	0(0.0%)	2(100.0)
합계	16(32.0%)	24(48.0%)	7(14.0%)	3(6.0%)	0(0.0%)	50(100.0)

*출처: 고용·산업 위기지역 설문조사, '20년 2월 1~14일(군산시)

◎ 기업수요에 따른 정책 방향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후 위기업종 기업의 경영여건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산업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
 -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들의 자금지원 요구가 증가('19년 46.7% → '20년 53.2%) 하여 기업에 대한 양적확대가 필요하며 양적확대와 더불어 대출한도 및 경영안정자금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기업들 대다수는(67.3%)는 산업위기가 단기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사업 또한 단기대책과 더불어 장기정책이 병행 되어야 할 것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후 다각화 노력 지원위한 다양한 정책발굴 필요
 - 위기업종 기업들은 기존 자동차·조선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산업다각화 위한 자구노력 중, 이를 지원하는 정책발굴 필요

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승인, 전라북도와 군산시 사업추진 방향

◎ 향후 2년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내야하는 시점

- 정부에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승인 심사 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강조,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시적 성과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
 -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승인 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예산투입에 비해 성과가 불명확한 점을 들어 추가 지원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가진 시기도 있었으므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성과창출 노력 필요
- 지난 2년간 추진한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와 더불어 신규 정부요청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이 병행되어야 함
 - 일부 가시적 성과를 거둔 사업은 지속적 추진 및 강화, 성과창출 시기가 미 도래한 사업은 사업 추진체계 점검을 통해 성과창출 노력 필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승인에 따른 신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북도, 군산시,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의의 및 향후 정책 방향

◎ 산업위기대응 사업 추진전략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승인에 따라 전북도와 군산시는 향후 2년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전략 수립
 -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공적인 수행과 더불어 지정연장 승인에 따라 기존사업의 고도화 및 신규사업을 정부에 요청
- 전북의 위기대응 사업 추진 방향은 자동차조선 산업위기 극복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선정
 - 전북은 자동차와 조선산업의 구조고도화와 다각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기존 산업기반을 활용과 더불어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사업 목표로 설정
- 자동차 산업은 패러다임전환, 미래형 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조선산업은 중소기업 자립화 역량 배양 및 업종다각화에 초점을 맞춤
 - 자동차 산업은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부품 고도화 기술개발, 선제적 시장 확보 기술개발 등 투-트랙 전략으로 친환경·미래형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
 - 조선산업은 중소형/특수선 중심 선박 특화분야 진출 및 적극 육성을 통해 대기업 의존도 완화 및 중소기업 자립화 역량 배양,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대응으로 사업 다각화 추진
- 추진전략과 과제로는 퇴직인력 고용안전 개선, 자동차조선 산업구조 고도화 및 체질개선,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을 선정
 - 퇴직인력 고용 안전 여건을 개선 위해 전기자동차 분야로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 자동차 조선산업 구조고도화 및 체질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관련 R&D 사업 지원, 특장차 산업육성 위한 인프라 구축, 조선 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그리고 업종다각화 위한 재생에너지 실증단지 구축 등 과제 추진
 -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위해 군산형 창업모델 혁신제조 창업팩토리 구축,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지역 유희자원의 관광자원화 등 추진

5. 시사점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결정은 위기업종의 고도화, 산업구조 재편의 기회

- 위기업종(자동차, 조선산업)의 단기적 반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결정은 위기업종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재편과 더불어 업종전환 및 다각화를 추진할 기회로 작용

- 기업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산업위기의 단기적 회복이 부정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승인은 군산이 위기지역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으로 평가
- 산업위기로 인해 폐업한 기업도 많이 있으나 협동조합을 조성하여 자구책을 마련한다거나 사업다각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는 등 기업차원의 생존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므로 이들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지정기간 연장은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상황

◎ 향후 2년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사업 성과 창출 극대화 노력 필요

- 2년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으로 추진한 지원사업 성과평가는 현재에도 진행중인 사업이 많아 평가 시기 미도래, 향후 2년은 기존 추진사업의 성과 극대화 방안 모색과 더불어 신규사업의 효율적 추진 전략 수립 필요

- 정부는 군산지역을 비롯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대부분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정확한 성과평가가 어려운 상황임. 향후 2년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성과창출 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응한 성과창출 노력 필요
- 정부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성과 창출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사업 다각화를 달성하여 산업구조 재편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토대마련 필요

◎ 기업수요 대응 정책 고도화 통한 산업위기 지원정책 수용성 강화

- 산업위기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지원 및 홍보강화

- 전라북도, 군산시 및 유관기관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기업 대상으로 산업위기 관련 각종 현안사업 및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마련 필요
- 전북 TP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기대응 기업비즈니스센터(중소기업벤처부 사업)의 역할 강화를 통해 위기업종 지원사업의 홍보 및 지원 거점으로 활용방안 모색 필요

- 위기업종 기업의 경영자금 지원 양적확대와 경영안정자금 지원방법 다양화 필요

- 기업 연쇄도산이 상존하는 위기상황에서 지원금의 양적확대 뿐 아니라 산업위기로 인해 신용상태가 불량해져 자금차입이 어려워진 기업에 대한 평가 후 대출한도 상향조정 또는 경영안정자금을 신용 보증으로 대출가능 하도록 지원 방식 변경 필요

◎ 위기대응을 위한 전담 지원조직 필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응하는 상시 TF 팀 구성 필요

- 산업위기 대응 세무지원, 일자리 연계, 기업유치, 자금지원, R&D, 기술실용화 등 기업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자치단체 차원 상시 TF 팀 구성 필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사업이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되어 총괄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관리 및 수행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전담 지원조직 필요
- 또한,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역의 업종별 위기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전 대응책 마련위한 지원조직 필요

<참고문헌>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KB국민은행, '월간 KB 주택가격동향' 각월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통계 현황' 각월호

국토교통부,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결과' 각분기호

전라북도, 내부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각월호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월호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산업단지 동향' 각월호



9 772508 688004
ISSN 2508-688X

www.jthink.kr

ISSUE BRIEFING
2020. 06. 24 Vol. 225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주팔각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발행인 김선기

발행처 전북연구원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